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21일(금)과 22일(토) 용인 심소재에서 있습니다. 21일 저녁 7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발행하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지하 재무부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거지 봉사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1층에 마련된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 주세요.

하루에 30분씩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 \* 떡 대 접 : 김경수 권사 (전영규 장로 장례)
- \* 식 당 봉 사 : 백혜숙 김희우 허정호 정현숙 박경선 전충길 조순덕
- \* 1/30, 2/6 식당봉사 : 문영혜 신영신 이현숙 이윤주 박윤숙 김성은 유명남
- \* 설 거 지 봉 사 : 조선환 강인숙 신진식 (다음 주 : 김종락 박영신 권혁신 )
- \* 새 교 우 : 김호정 (청년부) 전해나 (청년부) 전지나 (청년부)  
손규현 (5남) 조소명 (청년부) 현우영 (청년부)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103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주현절 제2주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깊은 고뇌의 밤 너머에 밝은 아침을 예비하시며, 혹독한 겨울 너머에 따스한 봄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눈앞의 어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밝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성실로 채워가게 해 주십시오.

하늘에서 은총처럼 내리는 하얀 눈이 더 이상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한파와 폭설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이 땅에 삼한사온의 기후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난한 이들이 날 썩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마5:9,10 ..... 인도자

♣ 교 독 문 ..... 122. 주현절(2) ..... 다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방문성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양 ..... 303(통403). 날 위하여 십자가의 ..... 다함께

♣ 성경봉독 ..... I. 창4:1-12 ..... 이승철 학생

..... II. 수8:30-35 ..... 최성애 권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찬 양 ..... 찬양대

말 씬 ..... I.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다 ..... 김재흥 목사

..... II. 새 역사의 문턱에서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함께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헌금:

오진훈	노순옥	이건식	신영신	박용진	김용원	방민	방준	허호범
박성실	김철수	유영남	문복순	최현선	최종훈	김금하	김용진	박효선
김기석	김희우	윤미경	윤정덕	구성실	박시내	김일량	이은옥	김재흥
최희영	최숙화	김정길	윤수진	조병무	송양진	양재성	임미심	임창선
윤석철	장혜숙	조관행	홍선희	김용길	최영혜	한완식	임정자	서원금
김성한	조영순	배삼순	박지인	방문성	박혜경	손경화	최종원	김준호
곽해자	김남중	오복순	박영희	백묘현	곽새롬	무명	김준우	우순덕
이광용	형인순	이한림	김명희	조항범	오현정	배근수	김금순	

### 월정헌금:

박옥순	박석희	조항미	김현주	박은정	유지은	윤주원	최윤선	최윤희
고숙이	하현철	최성애	박준희	이기분	정완수	김재광	정은선	장동훈
조병주	무명	이유선	방극숙	이수정	배재경	권혁신	왕수명	황원순
황자순	김명순	황경순	김성은	박옥식	조선환	이정은	송동준	김진경
이소순	최재욱	이수정	이현순	백성래	김순자	조재현	정두리	정선희
송임희	이광섭	이윤선	박안수	김미순	유상진	박인혁	유은정	문금석
김종문	이봉배	조순덕	문홍일	김승현	김수진	조은나	권혁순	박혜경
이은자	김종철	고영애	김혜권	박재임	배부레	김지윤	노우중	이영란
이주현	무명	변재민	이소혜	김영순	안길상	이형숙	전영자	L.K

### 감사헌금:

송원길 조항신 최종훈 김금하 김미영 한상의 정영선 문희창 김경수  
 무명

### 녹색꿈 헌금:

홍순구 안홍숙

### 생일감사헌금:

곽해자 이미혜

# 나무들의 겨울잠

김영천

잠시 숨을 멈추고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네  
 새로이 푸르러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도  
 또 한 해 만큼의 목숨을 절제하는 것이네  
 아니, 연습이 아니고  
 그 몇 달 동안은 실제로 죽은 것이네  
 성장점을 멈추고  
 모든 이동로를 차단하였거든  
 사실은 그렇게 잠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숨을 멈추어 나를 죽인 후  
 내 밖의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죽어야 살아나는  
 그 겸손으로  
 보라, 이 찬란한 정지를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운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연주	.....	홍지희
♣ 봉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 앞에 새로운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며 사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곱씹으며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사십시오.	
다함께 :	아멘. 숙명논리와 회의논리에 빠져 새로운 날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에게 앞서 주님께서 새날을 열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수많은 논리와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도 예수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복	.....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요한계시록 / 이성운 전도사 기도 : 윤성종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공동기도	조운경 학생
	김기석 목사	한상익 장로	정원석 집사

1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중수 임주빈 이순정 김금순 최현옥
	헌금위원	조병무 박홍재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행복의 뒷심

지상의 행복에는 척도가 있다. 그러나 그 척도가 고정불변한 것은 아니다. 행복의 척도는 시시때때로 변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삶을 인식하는 우리의 눈도 계속 바뀌니까. 소유의 많고 적음을 행복의 척도로 생각하는 이에겐 오로지 '더하기 행복'만이 행복이다. 더 큰 아파트, 더 큰 자동차, 더 많은 은행 잔고만이 행복을 셈하는 척도다. 그러나 이런 자신의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는 늘 불행하고 불우하다. 우리는 대부분 욕망의 충족에 비례하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런 비례가 어긋났을 때 불만과 결핍의 실낙원(失樂園)을 떠돌 뿐이다.

아울렛 같은 의류매장 앞을 지나가 보라. 쇼윈도 속에서 멋진 옷을 걸친 마네킹이 유혹한다. 한번 들어와서 걸쳐 보라고, 낡은 유행의 옷을 벗고 이 새 옷을 걸치면 행복해질 거라고, 나는 잠시 상상으로 마네킹이 입은 옷을 벗겨 내 몸에 걸쳐보고는 중얼댄다. 현찰은 없지만 카드로 결제하고 한번 걸쳐 볼까. 그러면 행복해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문득, 철학자 마르쿠제의 말이 머리를 스쳐간다.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고 착각하는 화려한 소유물이 실은 '행복한 마네킹'에 지나지 않는다고, 마르쿠제는 이렇게 덧붙인다. "마네킹은 몸에 걸친 옷을 자랑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옷이 아니다." ...

행복의 이런 척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놀라지 마시라. 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로이다." 라고 갈파하는 헬렌 켈러. 우리 자신과 비교할 때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의 이 역설적이고 특별한 행복론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자.

태양을 바라보며 살아라 / 그대는 그림자를 볼 수 없으리라 / 해바라기가 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지 말라 / 머리를 언제나 높이 두라 /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라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로이다

고통의 뒷맛이 없으면 진정한 기쁨은 거의 없다 / 불구자라 할지라도 노력하면 된다 / 아름다움은 내부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다

그대가 정말 불행할 때 / 세상에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대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한 / 삶은 헛되지 않으리라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 우리를 위해 열려 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놀라지 마시라고 했지만, 사실 이 시를 읽고 놀란 건 나 자신이었다. 헬렌 켈러가 어떤 사람이던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부둥켜안고 산 사람이 아닌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조건을 가진 이가 '행복'을 노래하다니! 불행의 조건이 반드시 사람을 불행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행복을 발견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낙원의 기쁨을 누리느냐 실낙원의 괴로움 속을 떠돌며 사느냐하는 것은 삶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말이 아닌가.

... 하여간 평생을 쓸개를 씹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살았을 시인은 "고통의 뒷맛이 없으면 진정한 기쁨은 없다." 고 고백한다. 눈도 캄캄, 귀도 캄캄, 목소리도 캄캄 닫힌 이의 눈물겨운 고백이다. 그런데 '고통의 뒷맛'이라니! 문득 가슴이 아리고 먹먹해진다. 내 경험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다. '고통의 뒷맛'이 없으면 진정한 삶의 기쁨이나 행복을 맛볼 수 없다. 목마름의 고통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제대로 물맛을 알 수 없고, 몸이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어떻게 이런 균형 잡힌 삶의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 그는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지만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가졌다'고 여기며, 삶의 '아름다움은 내부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러니까 그를 생기발랄하게 살도록 하는 삶의 에너지는 단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내부의 생명에서 나오는 빛, 곧 영혼에 있는 것. 어떤 수도승이 말한 것처럼 그의 내부에 있는 '영혼의 불꽃'이 그를 살아 있게 하는 에너지의 원천인 것이다.

흔히 우리는 행복의 닫힌 문만 바라보며 불행과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낙천주의자답게 그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말고 행복의 다른 문을 바라보라고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편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라고. 그러면 불행에서 벗어나 보람된 인생을 창조할 수 있다고. 우리가 자신의 불행의 조건에만 붙들려 있는 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